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체성 담론*

이 은 아
서울대학교

이은아(2016),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체성 담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2), 173-200.

초 록 본 논문은 뉴욕과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담론을 소개한다. 푸에르토리코는 대규모 이민, 역이민, 순환이민 등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주권이 없이 미국 영토에 귀속되어 있는 미연방이다. 섬과 본토 사이의 왕복 이주로 인해 주권국가를 향한 열망은 사라졌지만 문화적 국민주의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이민과 '문화적 국적(cultural citizenship)'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 국민주의(cultural nationalism)가 형성/발전되고 도전받은 흐름을 고찰해 본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연계된 뉴요리칸은 흑인성에 대한 인종적 이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해 왔다. 최근 들어 새롭게 부상한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한층 더 탈국가적/혼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섬 문화의 고수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가 다양한 이민사를 거치면서 음악, 문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전해 온 사실을 일별해 본다.

핵심어 푸에르토리코 정체성, 문화적 국민주의, 이민, 문화적 국적, 탈국가주의, 뉴요리칸, 디아스포리칸,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구 유실이 지속되는 추세다. 푸에르토리코는 섬의 규모에 비해 사회변동이 함축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 나라가 보여준 경제적 종속 과정이 중첩적이고 연쇄적일뿐더러 극명하리만큼 모순적이어서, ‘식민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의구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치 현재 진행 중인 식민주의 표본처럼 다가온다.

미국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다른 이민자 인구에 비해 시민 권리를 온전히 획득하면서 정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더딘 편이다. 이런 모습을 탈식민화의 어려움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처한 식민의 상황이 훨씬 끈질기고 뿌리 깊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푸에르토리코 섬 내부의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한 내적 식민주의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섬 정부의 국가 간 위계성이라는 이중적 식민성으로 인해, 미국 사회의 다른 인종적 소수자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장애를 지닌 것이다(Briggs 2002, 24). ‘권력의 식민성’을 주장한 아니발 키하노, 월터 미놀로, 라몬 그로스포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이민이 오히려 경제적, 인종적 차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디아스포라의 시민권은 역설적이게도 가난과 차별을 양산하는 기제가 되었다. 스페인어권 카리브 국가의 이주를 연구하는 문화사회학자인 호르헤 두아니(Jorge Duany)는 푸에르토리코를 ‘후기식민적 식민지(postcolonial colony)’로 정의한다. 이런 특징은 미국의 디아스포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이 시민권자인지 이민자인지 하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어떤 정체성을 지니더라도 이중적 불이익과 차별을 겪는다는 점에서 ‘신종’ 식민지의 피해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에 귀속되어 있지만 미국의 일부는 아닌 영토로서, 주권국가에 대한 열망이 적더라도 국민적 정체성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Duany 2002, 4). 20세기 전반에 자치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독립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른 섬 지도자들의 통치 기조로 인해 친독립적 성향의 흐름은 정치적 국가주의를 펼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후 섬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막론하고 주류사회는 전통적 유산과 무형의 공유 자산을 재확인하고 향유

II. 본 론

1. 푸에르토리코인에 대한 편견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은 다른 라티노들에 비해서 유독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종족적 차별을 당해 왔다. 가난, 폭력, 마약, 무분별한 성, 가정해체, 청소년 범죄, 퇴학률, 실직 등의 부정적 이미지들이 오래 동안 그들에게 고착되어 정형화된 오명의 낙인을 없애기 어려웠다.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2014년 기준 본토 푸에르토리코인 실질 평균가계소득은 대략 36,000달러로,⁴⁾ 미국 평균 53,657달러, 아시아계 74,297달러, 아프리카계 35,398달러, 히스패닉계 42,491달러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⁵⁾ 비록 라티노의 대다수인 멕시코계 이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층 상승의 욕구가 없고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1) 푸에르토리코인들을 향한 대표적 편견이라면, 우선 선거 결과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로부터 생긴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다. 2012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이 섬의 국가 지위를 두고 펼친 투표에서 미국의 한 주로 승격되는 길을 다수가 선택했다 이로 인해 독립을 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상을 세계에 재각인시켰다. 그러나 ‘주승격’에 표를 던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이 투표의 진의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50만 표 가량이 기권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80만 표로 얻은 최종 결정을 두고 절대 다수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프란세스 네그론-문타네르(Frances Negrón-Muntaner)의 『해당 사항 없음 *None of the Above*』이라는 책의 제목은 1998년 12월 13일에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인용한 것으로, 2012년 득표율의 진정한 의미를 유추하게 만든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전 수석재판관인 호세 트리아스 몽헤(José Trías

4)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4/07/01/hispanics-make-up-more-than-16-of-the-u-s-population-but-own-less-than-2-3-of-its-wealth/>

5) <http://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15/demo/p60-252.pdf>

Monge)가 지적하듯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인 이 섬의 주민들은 독립, 주, 미연방도 아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사항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이 두 번의 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느 제안을 하더라도 의견이 일치되기 어렵다. 섬 주민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소리일 수 있다. 독립당을 이끌고 오랜 기간 투옥생활을 했던 알비수 캄포스(Albizu Campos)를 떠올린다면 섬주민의 선택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미국식 소비문화에 익숙해진 그들이 독립된 국가에서 짊어질 실제적 부담과 고통을 상상해 본다면, 표심의 불일치가 이해되는 상황이다.

2) ‘가난의 문화(Culture of Poverty)’라는 이론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규정짓는 가장 견고한 틀로서 지금까지도 끈질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스카 루이스(Oscar Luis)의 가난 이론은 전후 푸에르토리코 이민에 대한 미국 본토 제도권의 반응으로 평가된다(Briggs 2002, 163). 루이스는 『삶: 가난의 문화 속의 푸에르토리코 가족-산후안과 뉴욕 *La Vida: A Puerto Rican Family in the Culture of Poverty-San Juan and New York*』에서 푸에르토리코 가족 공동체에 아버지의 부재, 어린 자식을 부양하는 모계 중심의 생활, 열악한 노동 습관, 부절제한 성 문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정 문화가 성장 기간 동안 학습되고 개인적 습성으로 정착되어 가족성원이 성장해서도 결국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가난의 원인이 사회제도보다는 문화적 관습으로 귀착되고 마는데, 80년대 이르면 가난의 문화가 세대 이동의 세습적 성격까지 지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Briggs 2002, 172).

그러나 이런 해석은 푸에르토리코 대규모 이민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60년대 뉴욕시는 후기산업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재조정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새로 유입되는 타지역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이 경제 사다리의 가장 낮은 계단을 메꾸게 되자,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들은 이런 노동착취

구조에서 생존하기 어려웠고 가난의 굴레에서 쉽사리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루이스의 이론은 글로벌 경제의 재편에 따른 제조업 이전, 부품 조립라인의 여성화와 노동력의 인종화와 차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난의 원인을 모두 개인적 취약성으로 돌리고 만다.

3)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의존적인 사람들로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연명하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다. 복지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구직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하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시민권을 지녔다는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게으르고 발전 의지가 미약한 종족인양 폄하하는 이미지 위주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60년대부터 디아스포라와 섬 사이의 순환적 이주로 인해 중산층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이주민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였기 때문에 재취직이 어려웠다. 더구나 푸에르토리코에 비공식경제가 발달되었고 최저임금과 정부보조수입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굴레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동안 푸에르토리코 출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보면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양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남부 지역에 새롭게 부상하는 중상류층 중심의 공동체의 경우, 이런 부정적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에 기대어 구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국가 재원을 낭비하는 인구는 지나친 일반화에서 나온 주장이다.

2. 문화적 국민주의 담론의 배경과 의미: 움직이는 국가(Nation on the Move)

두아니가 “푸에르토리코는 움직이는 국가다”(2002, 37)라고 정의할 만큼, 이들 공동체는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대규모 이민, 역이민, 순환 이민, 미국 내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고, 이것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두아니가 지적하는 점은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체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문화적 국민주의’에 기반한 예술행위가 외부로 많이 표출된다는 점이다(Duany 2002, 17).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국민주의는 반식민적 성향을 지녔다. 1898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경제적 개입으로

게 된다. 뮤노스 마린 정부는 섬인구의 배출을 실업률 해소와 정책 실패를 보완하는 ‘안전밸브’(Acosta-Belén and Santiago 2006, 79)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을 장려했고 이로 인해 결국 섬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미국행을 택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 56년까지 매년 4만2천명이 미국에 이주했을 만큼 규모가 거대했고 이로 부터 20년 사이 3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이민자가 증폭하게 되었다(Sánchez Korrol 2005, 1). 80-90년대 사이 이주 증가율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90년대 뉴욕시에만 약 90만 명이 남게 된다(Cruz 2005, 38-39).

이주의 형태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다른 이민자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60년대 중반부터 본토와 섬을 왕복하는 순환적 이민의 상승은 50년대 대다수의 이민자가 정착한 뉴욕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뉴욕시에서는 1958년에서 1965년까지 87,000개의 공장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 회사 227개가 문을 닫았다. 미중북부에 걸쳐 러스트벨트가 생겨났고 블루컬러의 구조적 실직이 발생하였다(Rodríguez 2005, 206). 뉴욕시의 노동자들, 특히 의류사업에 종사하던 여성노동력은 후기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화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를 최초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된다(Sánchez Korrol 2005, 4).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은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의류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뉴욕의 산업조정으로 인해 실직과 가난으로 대안 없이 몰려갔고, 이들 중 일부는 70년대부터 역이민을 선택하게 되었다.

역이민이 상승하고 순이민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이민의 흐름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섬에서는 부츠스트랩 근대화 정책의 실패 이후, 미국으로부터 제조업 회사 이전을 통해 GDP 성장을 꾀했지만, 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제조업 몰입 정책은 오히려 섬주민의 일자리 상실 및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이주를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양방향 이동이 원활하다는 의미의 ‘통근 국가(commuter nation)’, ‘항공 버스(guagua aérea)’ 등의 표현은 푸에르토리코의 대표적 국가 이미지이지만, 이런 움직임에 얽힌 사람들의 사정은 이주의 역동성, 자유와는 전혀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세상이 이런 이미지를 생산해 낸 실

전체의 48%가 남부지역에 집중되었다.⁸⁾ 2000년대 10년 동안 120만 명의 인구가 미국 내부에서 이동한 결과, 플로리다 인구가 2013년 거의 백만 명에 다다르면서 현재 뉴욕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지니게 되었다(Meléndez and Vargas-Ramos 2013, 18).⁹⁾

이런 이주 현상 속에서 정치적 민족주의가 날로 소멸되는 것과 달리 문화적 국민주의는 강하게 유지되는데, 탈국가적 이주가 문화적 국민주의의 생명력을 오히려 존속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할, 역사적 뿌리를 지닌 유무형의 문화들이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독립, 주권, 영토 등에 대한 소유권 투쟁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일부 학자들은 정치적 국가주의에 근거한 독립의 열망이 시간이 흐르면서 존재감을 잃어가자, 문화를 통한 주권 회복의 꿈을 그 대안으로 삼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다른 학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주의가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푸에르토리코의 특수한 경우를 ‘확대된 국가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물론 문화적 국민주의에 대한 한계도 거론된다. 이 담론이 제도권에 있는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에 봉사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빌라는 『지원받은 정체성 *Sponsored identities*』에서 섬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대중문화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정체성의 형성과 공고화에 대해 분석한다. 마크 짐머만(Marc Zimmerman)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Defending Their Own in the Cold*』에서 미국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식민적, 중

8)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10/30/in-a-shift-away-from-new-york-more-puerto-ricans-head-to-florida/>

9) 이런 이민의 패턴을 본다면, 기존 인구 유입과 정착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이 사용한 은유에 수정이 필요하다. 플로리다 인구의 급상승으로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상하였고, 이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곳 이주자들은 사업가, 전문직 그룹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존에 부정적으로 고착된 부정적 이미지를 점차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0) María Acosta Cruz의 『드림 국가 *Dream Nation*』(2014)에서, Jacqueline N. Font-Guzmán은 『푸에르토리코 시민권과 문화적 국민주의의 경험 *Experiencing Puerto Rican Citizenship and Cultural Nationalism*』(2015)에서 각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Borinquen)의 향수를 지니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되었다(Briggs 2002, 166). 뉴욕시는 1940년대부터 갑자기 밀어닥친 이들을 두고 ‘항공침입’, ‘푸에르토리코 문제거리’, 혹은 ‘신동굴거주인종’ 등의 제목을 달아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섬으로부터 46년도 4만 명, 47년도 2만5천명이 뉴욕시로 이주해 왔는데, 인구수가 감소한 47년도에만 30여 편의 뉴욕 타임지 기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럼에도 맨해튼의 로어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의 스파니쉬 할렘의 바리오 문화나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라틴 비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Briggs 2002, 167).

1950, 60년대는 이들의 가난에 새롭게 주목하면서 가치 부재나 일탈적 행위에 관심을 쏟았지만, 80년대에 이르면 이것마저 흔한 주제가 되어 가난의 구조적 요인들에 주요 분석을 할애한다(Falcón 2005, 157). 뉴요리칸은 다른 이민 공동체와는 달리 섬으로의 역이민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지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산하는 불운을 겪게 되는데, 이 점은 공동체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이민자 2, 3세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계층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못했고,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할 만한 안정된 장년층 집단이 두텁게 형성되지 못했다. “보리쿠아 대 뉴요리칸(Boricuas vs. Nuyoricans-Indeed!)”이라는 에세이의 설명에 의하면, 뉴요리칸은 학교보다는 감옥에 더 많이 가있는 사람들, 스페인어 구사에 서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섞여 살며, 반인종주의에 대한 정치성과 흑인성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¹²⁾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푸에르토리코 뉴욕 디아스포라의 역사에서 ‘로이사이다(Loisaida)’ 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로이사이다는 맨해튼의 로어이스트사이드를 그들 방식대로 바꿔서 명명한 말이다. 이곳에서 60년에서 75년 사이 제조업의 55%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특히 74년에서 79년 사이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2가 감소되었다(Ševčenko 2001, 294-295). 주택소유주

12) <http://revista.drclas.harvard.edu/book/boricuas-vs-nuyoricans%E2%80%94indeed>

들이 집의 보수를 멈추고 거주자들이 떠날 때까지 방치해 두어 지역 황폐를 부추겼다. 이는 뉴욕시 주택개발 행정부의 ‘축소 설계(planned shrinkage)’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시정부가 공공영역에 지출할 비용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대한 시설 정비를 중지하면서 전면적 재개발을 시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주민들, 특히 푸에르토리코 출신 노동자 계층이었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 주변 도시 혹은 뉴욕시의 다른 열악한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럼에도 1970년 이들 중 일부가 이곳을 그들의 주거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일종의 동네 문화 보호 운동인 로이사이다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Ševčenko 2001, 295). 공동체 운동가들이 이곳을 로이사이다로 명명하면서 이민노동자계층의 독자적 동네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과 함께, 최소한 거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보수개발에 발 벗고 나서게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운동이 특정한 영토에 대한 정치적 소유권 주장과 푸에르토리코성 담론을 펼치기 위한 투쟁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과거의 이스파나 콜로니아(La colonia hispana)¹³⁾나 푸에르토리코 밀집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단순한 거주 공간 확보 운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Ševčenko 2001, 294). 이 운동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은 60-70년대 미국 도시의 인권, 노동, 혹은 학생운동 등과 더불어 그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갖는다. 즉, 특정 거주 공간을 두고 문화적, 영토적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계토 중심의 뉴욕 도시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관심은 시기별로 다른 아젠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초기 50년대에는 비록 반미정서가 지배적이었지만 발전에 대한 희망과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많이 존재했었다. 다음 시기인 60, 70년대에는 반제국적, 반인종차별적 기치를 내걸고 좌파적 성향의 운동이 이 공동체를 휩쓸었다. 이

13) 1920년대 이전 뉴욕시의 이스트 할렘(East Harlem)에 주로 푸에르토리코사람들과 다른 라티노들이 밀집해 거주했는데, 특정 동네가 아닌 거주 주민으로 이뤄진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후 90년대부터는 힙합과 세계화, 탈국가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 스타 일이나 표현 방식과 같은 보다 미학적 영역에 주목한다(Flores 2009, 146-147).

디아스포라가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섬의 전통 문화 즉, 히바로(Jíbaro)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디아스포리칸 공동체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가주의 담론에 의해 육성된 문화 일부는 석화된 상태로 남거나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친다. 뉴욕 바리오에서는 일종의 선별 과정이 필요했고 살아있는 전통이 되기 위해서 시대와 환경을 녹여내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전통 문화와 일종의 갈등과 투쟁을 거치면서 차이를 넓혀나가게 된다. 섬의 지배층은 히바로 문화를 이상화하면서 과거 스페인 지배 당시 농경문화를 낭만적으로 이해했고 미국적 자본주의를 찬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섬에는 지역적 하부문화가 다양하게 편재했지만 아프로계 사람들의 문화와 요구가 크게 가시화된 적이 드물었다.¹⁴⁾ 그래서 백인 중심의 문화적 패권이 흑인의 비율이 높은 디아스포라에서 특히 배타적이고 억압적으로 인식되었다. 억눌린 지역문화와 아프로계 문화는 미국에서 계급적·인종적 분류에 의해 한층 더 차별적으로 다가왔다. 아프로계 디아스포라는 종족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던 시기에 생겨났기 때문에 극심한 인종 차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채 소외된 위치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들은 차츰 국민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대한 대중적 소유권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Duany 2002, 36). 플로레스는 이 과정을 흑인성의 재발견으로 규정하고, 뉴욕시의 아프리카계 사람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같은 선상에서 라켈 리베라(Raquel Rivera) 역시 푸에르토리코의 디아스포라에서 흑인 음악을

14) 푸에르토리코의 흑인성에 대한 연구 서적들, 예를 들어, 『흑인성이라는 대본: 푸에르토리코의 인종, 문화적 국민주의, 미국의 식민주의 *Scripts of Blackness: Race, Cultural Nationalism, and U.S. colonialism in Puerto Rico*』, 『인종을 잠재우며: 푸에르토리코의 흑인성, 식민주의, 국민적 정체성 *Silencing Race: Disentangling Blackness, Colonialism, and National Identities in Puerto Rico*』 등을 살펴보면 푸에르토리코에서 흑인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억압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통해 할렘 문화와 접촉하고 사회적 소외와 인종차별에 맞선 흑인운동의 정신을 습득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파악한다.¹⁵⁾ 뉴욕 바리오 학자들은 미국 아프리카계 인구들이 인접한 거주지를 통해 교류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청년 문화와 아프로계 비트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국가주의를 단일한 뿌리가 아닌 ‘종족적 국가주의(ethno-nationalism)’¹⁶⁾(Falcón 2005, 179)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자들이 가져온 카리브 음악은 다양한 지역적 음색의 혼종과 변형을 통해 바리오의 대표 문화로 부상하면서 도리어 푸에르토리코성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⁷⁾ 예를 들어,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춤 양식인 봄바의 경우, 뉴욕의 댄스홀에서 추기 위해 간결한 의상을 선호했고, 댄서와 관객이 흥을 교류하며 반응하는 즉흥성을 강조했으며, 다른 도시음악(urban music)들과 섞여 리듬을 현대화시켰다(Rivera 2007, 222). 아프로적 감성은 즉흥성과 상호성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섬에서는 공연용, 전시용 문화 상품으로 변모하면서 전통 유산에서 이런 요소를 제거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히바로 음악에서 맘보로, 이후 살사, 힙합과 랩 음악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디아스포리칸은 그들의 음악을 아프리카계 거주민들과 공생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한다.¹⁸⁾ 따라서 섬의 백인 중심 문화에 의해 억눌려 왔던 아프로적 감성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재발견되었고, 나아가 인식적, 정치적, 문화적 연대를 만드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었다.¹⁹⁾ 푸에르토리코

15) 라켈 리베라는 아프로디아스포라(afrodiaspora), 아프로보리쿠아(afroboricua)가 이런 음악 장르를 통해 그들의 아프리카적 뿌리를 표출해 낸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리베라는 흑인성에 대한 수용, 행위적 미학을 탈식민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16) 이에 대한 근거로서 디아스포리칸들이 스스로를 백인, 히스패닉, 라티노, 타이노(taino),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으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경향(Falcón 2005, 180)을 지적할 수 있다.

17) 섬 문화의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의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영역이 음악분야인데, 『봄바에서 힙합까지 From Bomba to Hip hop』나 『힙합 지대의 뉴요리칸들 New York Ricans From the Hip Hop Zone』같은 텍스트를 통해 ‘진짜’ 푸에르토리코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섬에서는 백인과 흑인 인구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 위계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뉴욕에서는 아프로계 카리브 문화를 통해 비록 피상적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출신국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Zimmerman 2011, 14).

푸에르토리코성 논의에서 새롭게 거론되는 점은 섬과 디아스포라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 정체성에 변화가 생겨나고 실제적 영향력까지 외부로 표출된다는 사실이다. 플로레스는 『디아스포라의 반격 *Diaspora Strikes Back*』²⁰⁾을 통해 이런 탈국가적 순환 이민이 푸에르토리코 섬 문화에 변화를 촉발시키는 과정을 포착하고, 국민적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재정립되는가하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추적한다. 그는 얘기하는 ‘아래로부터(below)’ 변화되는 사회 현상은 여러 의미에서 소외층을 주체로 하고 있기에 본질적으로 저항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로부터’라는 함의는 사회 주변부라는 계층적 함의뿐 아니라, 젊은 세대라는 연령적 주체와 길거리 문화라는 비주류적 문화를 모두 포괄한다. 플로레스는 특히 청년문화가 고국의 현실에 관여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카

-
- 18)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스페인권 카리브의 흑인과 몰라토 문화는 “전통적으로 백인계 혹은 스페인계를 위시한 국가의 헤게모니적 역사에 의해 삭제되어 왔고, 아이티를 연상시키는 흑인성을 거부해왔다”(Arroyo 2010, 207). “푸에르토리코의 봄바, 아이티 라라, 도미니카 팔로스, 살베스와 같은 종교음악의 아프로디아스포라 음악 장르가 범카리브 디아스포라 역사의 중심이었다”(Arroyo 2010, 207 재인용).
- 19) 실레로 팻 조(Fat Joe; Joseph Cartagena)는 아프로무슬림 종교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미국 군사훈련 반대투쟁인 비에케스 운동에 참여하고, 토니 터치(Tony Touch; Anthony Joseph Hernandez)는 자신의 앨범에 독립운동가인 알비수 캄포스 목소리를 샘플링해서 넣기도 하고, 빅 펀(Big Pun; Christopher Ríos)은 푸에르토리코 국가인 ‘라 보린케냐(La Borinquena)’의 시구를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한다(Rivera 2007, 224).
- 20) 플로레스의 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문화적 송금(Cultural Remittances)’은 페기 르빗(Peggy Levitt)이 『탈국가적 주민들 *Transnational Villagers*』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s)’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푸에르토리코 섬 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플로레스는 한 실레로 미국의 길거리에서 체득한 청년문화가 섬의 음악, 글쓰기 양식, 의상 스타일, 누에바올(Nuevayol), 도시 벽화 등 다양한 형태로 신선하게 표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한다(2009, 215). 문화적 송금이라는 개념이 섬에서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는 뉴욕 공동체에서 온 외래문화가 다소 낯설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의 이질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섬 주민들이 수용하고 흡수하는 데 큰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브 지역 출신 이민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체득한 인종적 연대에 집중한다. 뉴욕 디아스포라에서 푸에르토리코, 쿠바, 도미니카 출신 이민자들이 카리브 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발전을 이룬 사실을 언급하며 ‘트랜스로컬’²¹⁾이 실현하는 창조적 도전에 주목한다.

1970년 이후 많이 생겨난 역이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70년대 섬의 언론들은 이들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했고, 당시의 살사 아노미, 범죄, 일탈, 혹은 빈약한 언어사용 등이 섬을 휩쓸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섬 사회에 위협으로 비춰졌던 역이민자들이 점차 미국의 문화와 상업을 소개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Falcón 2005, 165). 특히 2000년대 이르러 뉴욕 디아스포라에서 유입된 문화가 섬에서 저항적 성격의 문화 연대를 창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섬의 시인들이 로이사이다 운동 시기에 활발했던 뉴요리칸 카페(Nuyorican Café)의 시운동을 재현한 일이다. 섬 시인들은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스타펄리쉬의 재치와 유연성을 통해 표현했던 뉴요리칸 시인들처럼 현재 산후안에 동명의 카페를 만들고 동시대의 문제를 토로한다. 이들은 시 낭독 모임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성’에 냉소하고 현실의 고통에 대해 문학적 위안을 얻는다(Flores 2009, 188). 이렇듯, 앞서 언급한 트랜스 로컬들은 푸에르토리코성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양식의 분화와 이데올로기의 분열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자극이자 촉발로 기능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일탈적 문화가 부정적 영향력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섬의 가부장적 문화, 계급적 패권, 인종과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비판함으

21) 플로레스는 로버트 C. 스미스(Robert C. Smith)가 집필한 『멕시코인의 뉴욕 *Mexican New York*』의 ‘탈국가적 로컬(Transnational Localities)’이라는 개념 또한 차용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나 산업체 주도의 기업조직문화가 아닌, 다양한 지역 출신의 멕시코 출신 노동자계급이 회사일을 통해 만들어 가는 직장 문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Flores 2009, 25). 플로레스는 이런 교류가 창의적인 트랜스로컬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실제 작업 현장에서 탈국가적 삶의 양식이 배태되는데, 출신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만의 특유한 문화와 인종적·종족적 의식, 사회적 자각을 체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랜스로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로써 푸에르토리코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일조한다.

앞에서 살폈듯이, 뉴욕시의 척박함에 직면하면서 섬의 문화적 국민주의는 보리쿠아의 생존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다. 점차 섬 인구의 혼종성과 문화의 이질성이 디아스포라에서 재발견되고 표출되는 계기를 맞았고, 새롭게 해석된 뉴욕 공동체 문화가 푸에르토리코 국가문화의 일부로 수용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60년대 영로드당을 위시로 한 노동, 권리운동, 혹은 매년 진행 중인 ‘푸에르토리코 국민절(National Puerto Rican Day)’ 퍼레이드 등이 푸에르토리코의 국민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보리쿠아 문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력운동, 시민운동의 유산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 아프로계 문화 속에서 인종적 뿌리를 재발견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게 발전했다. 인종적, 종족적 자각을 통해 획득한 문화적 자긍심이 궁극적으로 ‘국민적 문화 담론’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섬의 청년 세대들은 ‘아래로부터의’ 문화적 접촉과 수용, 변용을 통해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목소리’(Flores 2009, 143)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가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정받아 온 것들에 저항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문화적 국민주의 담론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4.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확장·확산되면서 문화적 국민주의라는 개념은 탈신화화되는 과정을 거쳐 간다. 반면, 지난 20여 년간 푸에르토리코의 정체성 논의가 다른 층위로 이전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에서 기인한다. 이미 새로운 정체성 담론이 확연히 대두되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런 변화와 맞물려 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구들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플로리다, 특히 올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플로리다는 1990년대부터 뉴저지를 제치고 뉴욕 다음으로 푸에르토리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이곳은 1960년대 미국 거주 인구 2%를 차지했는데, 2008년 약

18%, 2014년 약 54%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쿠바인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라티노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향했던 지역, 즉 북동부 혹은 북중부 지역이 아닌 플로리다에 밀집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올랜도의 관광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서비스업 등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존재는 쿠바인들처럼 1900년대 초 담배제조업, 이후 의류제조업 등에서 과거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그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밝히는 자료 복원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섬으로부터 소규모 이동이 시작되었고, 70년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은퇴이민에 해당했다(Duany and Silver 2010, 17). 80년대 중반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시장과 상업이 조금씩 부상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 이주율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결과, 올랜도의 경우 라티노 총 비즈니스의 25%를 푸에르토리코계가 차지하고 있다(Duany and Silver 2010, 19).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는 다른 라티노 이민자와 구분되는 면모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전 세대와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뉴욕의 디아스포리칸과는 차별되는 이들 공동체의 형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문화적 국민주의의 경향에 대해 가늠해 보기로 한다.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섬으로부터의 ‘두뇌 유출’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이 다른 주의 이민자들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섬 출신 노동자 절반 이상이 행정직 혹은 판매업에 종사한다(Duany and Silver 2010, 18). 그러나 인구 조사에 의하면, 출신지를 막론하고 저소득 노동자 계층과 본토 출신의 중산층이 함께 거주자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로 소득층과 직업군이 매우 다양하다(Duany and Silver 2010, 22). 그래서 비록 이들의 빈곤률이 다른 주에 비해 낮고 경제적 위상이 높은 편이라 해도 여전히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 전체 소득에서 뒤쳐진다. 다만, 고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을 중심으로 푸에르토리코 이민사상 유례없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비히스패닉계 백인 중산층에 견줄 만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Duany and Silver 2010, 25).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계층이 섬 출신의 중산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정체성 표현이 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들 중산층은 이민자로서의 정서보다는 탈국가적 삶을 영위하고 섬의 주류 문화를 고수함으로써 문화적 정통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다.

두아니의 연구에 의하면, 섬 출신의 이민자와 뉴요리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인종적 인식이다. 플로리다 공동체의 약 3분의 2가 자신을 백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피부색과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편견이나 차별, 분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상업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통해 다국적 가정을 이루는 비율도 높은 편이고, 많은 이들이 자신을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로 분류하는 데 거부감을 느낀다(Duany 2010, 109). 이것은 다른 라티노와 특히 변별되는 부분으로서, 범히스패닉이라는 정서보다는 자신들의 국가적 배경을 앞세우며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한층 더 탈국가적으로 되어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인종의식과 계층적 소속감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분석과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헌터(Hunter) 대학의 푸에르토리코 연구 센터에서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라는 제목의 학술지 특별호를 발간했는데,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탈국가적·혼종적 양상을 분석한 학자들 모두 기존 푸에르토리코성 개념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트리시아 실버(Patricia Silver)는, 중부 플로리다의 디아스포라가 푸에르토리코성을 만드는 새로운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핵심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곳만큼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공동체가 없을 정도로, 계층, 교육, 출신지, 문화적 성장, 직업, 언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다. 실버는 디아스포라 내의 반목과 차별을 넘어서는 연

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플로리다의 삶이 푸에르토리코 인구의 전체 경험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고 역설한다(2010, 80). 두아니도 이들이 다른 라티노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존의 푸에르토리코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공고해졌다고 해석한다. 이들 공동체는 계급, 세대, 인종적 인식이 뚜렷한 편이고, 섬 출신의 경우 뉴요리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가 명백하다(Duany and Silver 2010, 24). “푸에르토리코성이라는 담론은 여전히 히스패닉, 라티노, 뉴요리칸 정체성보다 우선시된다. 그래서 올랜도의 푸에르토리코 중산층은 종족적, 인종적, 혹은 범히스패닉 연계보다는 ‘장거리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를 받아들여야 한다”(Duany and Silver 2010, 24)고 설명한다. 두아니가 말한 장거리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실질적 계층상승을 위해 미국 내 성공을 희망하고 노력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섬 내부의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소속활동을 지속하면서, 삶을 이루는 모든 관습, 가치, 풍습 등을 섬 혹은 섬 출신의 공동체를 통해 따르고 있다는 말이다(Duany 2010, 109). 다른 라티노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탈국가적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장거리 혈연·지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깊숙이 전착하고 있다(Duany 2010, 110).

한편, 나탈리 언더버그(Natalie Underberg)는 풍속예술가인 릴리 카라스키요(Lilly Carrasquillo)의 작품세계를 예시로 들면서, 이미 예술작품세계에 디아스포라 문화, 디지털 미디어, 다양한 라티노 문화 등이 뒤섞여 ‘진정한’ 푸에르토리코 문화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졌다고 분석한다.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온라인에서 재현할 때, 어떤 것이 핵심적인 문화 아이디어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2010, 119), 유동적·혼종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탈국가적 문화 속에서 섬 문화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일이 어불성설일 수 있다. 디아나 아리사(Diana Ariza)는 청소년 시기에 이민을 온 제 2세대 청년 역시 출신 지역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출신지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성에 대한 정의와 미국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다. 제 2세대 청년의 경우 다른 라티노들과 유대감을 중요시하고(2010, 148),

소외의 감정보다는 ‘선택적 동화’를 희망하며, 음식, 음악, 언어 등을 통해 자신의 푸에르토리코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사회 내의 안착 욕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2010, 150).

위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듯이 플로리다의 탈국가적·혼종적 디아스포라는 푸에르토리코성에 대한 인식에서 한층 더 분화되어 있고, 뉴욕 디아스포라의 ‘이등시민’의 인식보다는 섬주민의 ‘문화적 국적’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진다. 문화적 국민주의의 흐름에 있던 과거에 비해 문화적 유대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부 플로리다의 이민 패턴을 보면 이들은 이전 세대의 ‘통근 국가’, ‘움직이는 국가’보다는 전통적 이민 모델에 가깝다(Barreneche et al. 2012, 21). 초기 뉴요리칸들이 생존을 위해 문화적 결집력을 강화시키고 순화된 정치적 국가주의의 형태로 문화적 국민주의를 내세운 반면, 플로리다 공동체는 섬문화를 통해 열등한 라티노 타자와의 변별력을 강조한다. 이들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데 통합적 시각이 불가능할 만큼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는 세대, 장소, 인종,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 단일 문화, 정통문화에 대한 합의 또한 이데올로기적 주장에 가까울 만큼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푸에르토리코 이민사에는 시민권과 국민적 정체성, 문화적 소속감, 인종주의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뉴욕 디아스포라를 통해 섬에서 고취되고 유포된 문화적 국민주의는 다른 흐름으로 분화되었고 고유한 국민적 정체성은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혼합과 교류를 통해 유연한 변형을 겪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살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 공유 문화를 통해 개인을 소속 사회의 일부로 인식한다. 이주가 가속화되는 국민임에도 여전히 국민문화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간으로 받아들인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양 방향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시민권을 지녔지만,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역설적이게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 국적’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에서는 ‘문화적 국적’이 무엇보다도 ‘푸에르토리코 국민절’ 퍼레이드로 표출됨으로써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행위예술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아메리카’적인 것에 대항하는 혹은 보완하는 내러티브를 통해서(Briggs 2002, 15), 한편으로는 이주, 이동, 전치를 겪으면서 부딪치는 외부 세계와 내부적 문화의 경쟁을 통해서, 트랜스코컬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떠나는 이민과 돌아오는 이민, 순환 이민, 이들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문화적 조합과 상호 영향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역이민이 생기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발생하는 일이다. 이들의 삶이 한층 더 탈국가적으로 될수록 이런 국민 문화 역시 빠르게 변용을 겪고 있고, 이와 함께 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소유권도 주류 문화에 대한 반기, 수정, 재점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흑인성에 대한 개념 또한 재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디아스포라 출신의 청년문화가 섬의 지배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제 섬주민과 디아스포라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이주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이들 공동체가 희망하는 소속감은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적 공유와 행위를 통한 소속감의 향유에 가깝지만, 이민 인구의 인종적 성격, 경제적 위상, 혹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문화적 국적’에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소위 푸에르토리코 정통문화는 도전을 받고 해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강하게 고수하고 옹호하려는 공동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변화를 통해 국민적 정체성의 근간이 문화적 역사성과 계급성뿐 아니라 인종적, 세대적, 저항적 유대감을 만드는 사회적 경험임을 확인하게 된다. 섬과 디아스포라를 막론하고 이런 유대감을 가장 외연화한 사례는 비에케스 사건이다. 미국의 제국적 영토사용에 대한 반감을 집단적으로 표출시킴으로써 내적인 단결과 정서적 합일을 확인했다. 이 사건이 비교적 이례적인 경우라면, 보통 주민들은 공공적인 장소에서 매년 열리는 예술

적 퍼레이드, 2016년 148주년을 맞게 되는 독립기념일 행사인 라레스 봉기 (Grito de Lares) 집회, 혹은 전통적 종교적 제례 등을 통해 아마도 정신적 소속감 및 정치의식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작은 섬 국가임에도 (후기)식민주의, (탈)국가주의, 혹은 인종주의 등이 낳은 폐해와 한계가 응축되어 있는 곳으로 ‘문화적 국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권과 법적 소속의 빈공간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들어 크게 확산되는 플로리다의 공동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이민자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학술적 통계 연구에 면밀히 포착되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선입관을 뛰어넘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50년대의 뉴요리칸과 완전히 변별되는 중산층 전문직 이민 집단의 비율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출신지를 막론하고 노동자 계층의 분포가 크다. 이들이 공동체 내부의 차이와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일성을 형성할 것인지, 혹은 집단적 이기주의를 통해 분열된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라티노들의 유대를 통해 범히스패닉 정서를 공유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들로 우리들의 관심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 Acosta-Belén, Edna and Calos E, Santiago(2006), *Puerto Ricans in the United States: A Contemporary Portrait*,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Ariza, Diana(2010), “Puerto Rican Youth in Central Florida: Adaptation and Identity”, *Centro Journal*, Vol. XXII, No. 1, pp. 129-153.
- Arroyo, Jossianna(2010), ““Roots” or the virtualities of racial imaginaries in Puerto Rico and the diaspora”, *Latino Studies*, Vol. 8, No. 2, pp. 195-219.
- Baker, Susan S.(2002), *Understanding Mainland Puerto Rican Pover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arreneche, Gabriel Ignacio, and Jane Lombardi and Héctor Ramos-Flores(2012), “A New Destination for “the Flying Bus”? The Implications of Orlando-Rican

- Rodríguez Clara E.(2005), “Forging a New, New York: The Puerto Rican Community, Post-1945”, in Gabriel Haslip-Viera. et al.(eds.)(2005), *Boricuas in Gotham: Puerto Ricans in the Making of Modern New York City*,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Sánchez Korrol, Virginia(2005), “Building the New York-Puerto Rican Community, 1945-1965: A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Gabriel Haslip-Viera. et al.(eds.)(2005), *Boricuas in Gotham: Puerto Ricans in the Making of Modern New York City*,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Ševčenko, Liz(2001), “Making Loisaida: Placing Puertorriqueñidad in Lower Manhattan”, in Agustín Laó-Montes and Arlene Dávila(eds.)(2001), *Mambo Montage: The Latinization of New Y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lver, Patricia(2010), ““Culture is More Than Bingo and Salsa”: Making Puertorriqueñidad in Central Florida”, *Centro Journal*, Vol. XXII, No. 1, pp. 57-83.
- Underberg, Natalie M.(2010), “Negotiating Puerto Rican Identity in Central Florida and Online”, *Centro Journal*, Vol. XXII, No. 1, pp. 117-127.
- Zimmerman, Marc(2011), *Defending Their Own in the Cold: The Cultural Turns of U.S. Puerto Rican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Alvarez Curbelo, Silvia(2008), “The Puerto Rican Soldiers in Korea (1950-1953)”, <http://revista.drclas.harvard.edu/search/site/puerto%20rico%20korean%20war>
- DeNavas-Walt, Carmen and Bernadette D. Proctor(2015),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http://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15/demo/p60-252.pdf>
- Jiménez Román, Miriam(2008), “Boricuas vs. Nuyoricans-Indeed!”, <http://revista.drclas.harvard.edu/book/boricuas-vs-nuyoricans%E2%80%94indeed>
- Surowiecki, James(2015), “The Puerto Rican Problem”,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15/04/06/the-puerto-rican-problem>

이 은 아

서울대학교
novela63@snu.ac.kr

논문투고일: 2016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1일

